

목차

| | | |
|---------------------------------|-------|-----|
| 서문을 대신하여(1),(2) | | 2P |
| 우리에게도 인간의 모든 권리를! | | 4P |
| 우리 학교 인권 점수는? | | 18P |
| 쉬운 말로 고쳐 쓴 아동-청소년 권리조약 | | 20P |
| 인권과 교육 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 학생연합 소개 | | 24P |

서문을 대신하여 (1)

89년 자살한 정성목의 일기 중에서

8910.3.화

성적을 올리자!
그럼 전학 갈 수 있을까?
아냐, 절대 안될거야.
그럼 자살?
아니면 가출

89.10.29.일.

학교내의 모든 것이 무섭다.
모두가 날 잡아먹으려는 것처럼 느껴진다.
자살하고픈 충동이 자꾸만 일어난다.
마귀가 내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
어디로든 떠나고 싶다.
빠른 시일내에 결판내리라.
전학 아니면 자살 (아니면 가출)

4323. 155. 일.

후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왜 이 길을 택했는가 도 잘 모르겠다.
나만 죽고 싶지 않다는 것뿐
다시 태어난다면 입시 지옥이 아닌 곳에서 교회에 충성하며 살고 싶다.
나를 사랑해준 모든이에게 감사하구, 용서를 빈다.
마지막 일기도 이젠 끝이다.

(<http://my.netian.com/~ingyukim>에서...)



..... 서문을 대신하여 (2)

미국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에릭 헤리스(18세)의 유서중

지금쯤은 모든 것이 끝났을 것이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을 즈음에는 내 임무가 완료 됐을 것이다. 나는 마음 속의 두려움을 변혁하는 일을 끝냈다. 나를 모욕하고 나를 친구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깝다는 식으로 나를 대한 당신들의 아이들은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은 죽는다.

당신들은 내가 입는 옷과 내가 즐겨 듣는 음악과

내가 행동하는 방식의 탓으로 돌릴 것이다.

그러나 아니다.

뒤로 숨지 말라.

이것은 당신들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당신들 교사와 학부모들 때문이다.

당신들이 이 아이들에게 앞선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들과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가르쳤다.

당신들은 틀렸다.

나는 그들의 목숨과 내 목숨을 모두 앗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들이 벌인 일이다.

당신들이 죽는 날까지 이 학살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살게 되리라.

내가 미쳤느냐고? 그럴지도 모르지. / 이게 내 잘못이냐고? 아니다.

이 삶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삶에서 탈출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총알이 내 머리를 관통하는 순간

이 모든 공포가 끝나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운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인간의 모든 권리를!!

학생 인권과 교육 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 학생연합

이 글은 청소년의 권리를 제약하려는 보수적인 어른들의 논리에 대항하여, 청소년에게도 인간의 권리(인권)를 부여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어른들에게 ‘인권을 좀 주세요~’라며 떼를 쓰는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청소년 인권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해내는 모습이 되길 희망하며 이 글을 씁니다.

이 글이 중고등 학생,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제도에 대항하는 끝은 무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의 어른들, 선생님들, 그리고 심지어 학생들과 청소년 자신 들 조차, 학생과 청소년도 인간이라는 것을 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풍토가 청소년과 학생들의 인권을 너무나 제약하는 풍토였기 때문입니다. 당장 학교에선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즉, 학생에게 누구나 누려야 될 신체와 표현의 자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지대로 모임을 만들고 활동하는 것도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다 못해, 학교에서 정식 동아리로 인정하지 않는 만화 동아리는 불법 지하 서클처럼 찍혀 해체를 종용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육적인 이유”에서 학생들을 “지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각 중고등학교 마다 ‘학교의 명예’를 위해? 혹은 선생님들의 경력을 위해 대학 진학률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하는 행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과 똑같은 인간인, 그래서 존엄한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대학 진학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다 너희들의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다. 학교는 단순히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 학원이 아니다. 규범을 배우고 자기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그러니 몇 년간 참으면서 자기를 가다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은 스스로 민주주의에 대한 무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권리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침해당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는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되게 되어있으며 그때에도 기본적인 인권은 절대 침해당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학생과 청소년들은 헌법도, 법률도 아닌 고작 학칙에 의해서 혹은 학칙에 나와있지도 않은 선생님들 그 때 그 때 기분에 의해서 너무도 많은 인권을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생님들과 어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핵심은 **‘배우는 과정에서는 권리는 제약되어야 한다’**는 편견입니다. ‘너희들은 아직 아는 것도 없고 제대로 판단할 줄도 몰라서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누군가가 항상 지켜주고 돌봐줘야 해.’라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지요. 이런 생각을 ‘권위적 간섭주의’라고 합니다. (흔히, 보수적인 어른들이 갖는 생각이고 남성 우월 주의자들이 갖는 생각이기도 하죠. ‘여자들은 힘이 약하고 자기에게 득이 되는 것이 뭔지도 몰라서 남성이 항상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그러나 이러한 권위적 간섭주의는 전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맨 나중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일단은 보수적인 사람들이 청소년의 권리를 제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을 하겠습니다.

1. 청소년은 정말, 도덕적인 판단력이 부족한가?

보수적인 어른들이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의 권리, 통신,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하는 대표적인 말이

“너희는 아직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이 선생님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 줄 테니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는 식의 말입니다.

물론, 이런 정도의 이야기라도 하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한 선생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말도 안하고 막무가내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은 위에 쓴 내용처럼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도 하지 않는 선생님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사실, ‘청소년-중고등 학생은 어리기 때문에 도덕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을 ‘발달 심리학’을 이용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선 사범대학을 나오거나 적어도 대학 다닐 때 ‘교육학’과 관련되어있는 과목들을 많이 공부해야 되는데 그 중에 ‘발달 심리 이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즉, 아기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가는 심리적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죠. 이러한 ‘발달 심리학’분야의 학자 중 가장 유명한(?)학자로 미국의 ‘콜 버그’라는 사람을 꼽습니다.

콜버그는 우선 몇 명의 '실험'(심리학도 실험이 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곤란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우리가 중학교때가 도덕책에서 본

'아내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동네에 약국은 하나 밖에 없다. 가진 돈은 10만원 밖에 없는데 약사는 30만원을 내라고 한다. 외상으로 사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보나 약사는 거절한다. 이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인가?'

라는 식의 질문도 바로 콜버그가 만들어서 질문한 곤란한 상황 중 하나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실험을 한 결과 콜버그는 사람의 도덕적 판단력은 다음의 세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인습 이전의 수준

인습이라는 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관습이라는 것이겠죠? 이때는 모든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얼어 맞지 않으려고' 착한 일을 합니다. 아주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발달하면 '상을 타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도록 업그레이드 된다는군요. 정말 단순한 단계입니다.

둘째: 인습 수준

이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속해있는 집단(학교, 가정, 또래 등..)의 인정을 받기 위해 착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더 발전되면 남한테 인정 받느냐 보다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의무를 지키는 것'에 맞추어 행동한다는군요. 대부분의 어른들이 제 2단계에 머문다고 합니다.

셋째: 인습 이후 수준

흔히 존경받는 인격을 갖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간의 계약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동합니다. 민주적인 질서 속에서 서로간의 계약과 평등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네요. 그러나, 전체 성인의 20%정도만이 이 단계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보통의 성인들은 둘째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단계에 도달하는 나이는 대략 15살이라는 게 콜 버그의 견해입니다. 즉, 15살만 되면 도덕적인 판단력이 보통의 성인과 동등하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사범대를 나오고 교육학을 공부해서 교사가 된 선생님들일 텐데 왜 이 이론은 까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요약하자면, 15살부터는 도덕적인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콜 버그의 연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프랑스 툴루즈에서 1500여명의 **고등학생**들과 함께 한 **여고생**이 동맹휴업(일종의 수업거부)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98, 99, 2000년에 걸쳐 **민주·독립 고교생 연합(FIDL)** -프랑스의 '전국 중고등 학생연합'과 같은 조직! - 이 주도한 시위가 벌어졌다.

98년 최대 50만 명까지 참여했던 시위에서 **FIDL**은 학생은 낙후된 시설 개선, 교사 부족사태 해결, 과밀학급 해소, 커리큘럼 완화, 교내 민주화, 교내 폭력 근절 등을 요구했다.

2. 권리의 제한 기준으로 연령과 학생이라는 신분이 적합한가?

현재 한국에선 권리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연령을 삼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들 야시다 시피 ‘나이=능력’이라는 등식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중3 학생과 치매에 걸린 80세 노인을 비교해봅시다. 과연 누가 더 명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률은 연령으로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헌법의 정신에 따르면 권리의 제한은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으로 이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률과 사회적 관행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싸잡아서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위헌(헌법에 어긋남)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 권리를 제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일단 나이에 상관없이 권리를 준 후에 특정한 문제(정신병이 있거나, 범죄를 저지른거나 하는)가 있을 때만 부분적으로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 옳습니다.

(얼마 전 과외를 허용하는 헌법재판소 판결도 바로 이 원칙에 의한 것입니다. 즉, 문제가 되는 개인교습-고액과외-만 금지해야 하는 거지 단속을 쉽게 하려고 모든 개인교습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이야기였죠. 과외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맙시다.)

행정의 편의상 연령을 기준으로 권리를 제한하는 바람에 능력 있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권리의 제약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특히 도덕적인 판단력의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권리의 제약 기준으로 ‘학생’이라는 신분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의 “**청소년=학생**”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지경이죠. 그래서 학생 신분으로 인해 권리를 제약받는 것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보통 ‘**학칙**’에 의해서 **기본적 권리를 제약**받습니다.

가령,

‘교장의 허락없이 학외 행사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무기정학, 유기정학, 근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는 학칙이 있다고 칩시다.

이것은 명백히 ‘집회·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학칙입니다. 즉, 위헌적인 학칙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학칙은 위헌입니다’라고 반박하면 보수적인 교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가 우리 학교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학칙을 지키겠다는
계약 아니냐? 정 우리 학칙이 맘에 안 들면 학교를 때려 치고 공
장에 다니든지 해라. 아니면 전학가든지...”

여기까지 대화가 진행되면 사실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게 현실이죠. 얼어맞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은 ‘교사’이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중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모르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국민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민의 권리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국가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세금을 내고, 그 돈을 갖고 국가에선 ‘공교육’을 시행하죠. 사립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립 중고등 학교는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

다. 그렇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 한 국민의 교육권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방편이죠.

즉, 우리는 앞에 등장한 보수적인 선생님이 뭐라고 써부렁대든지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인생을 설계한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학칙을 가지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단순히 학교와 학생간에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조건(여기선 학칙이겠죠!)을 지켜야 옳겠죠.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그 계약 조건을 어기면 계약은 깨지는 것(퇴학?)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학생과 학교의 관계는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학교는 분명히 국가가 국민의 교육받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었고,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맘에 안 들면 그만 두는 게 아니라 맘에 들게 바꾸는 게 중요하고 또, 정당한 겁니다.

학칙과 학생들의 권리가 충돌합니다. 그런데 학칙은 위헌적이고 학생들의 권리는 유별난 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뻔한 겁니다. 학칙이 잘못되었고, 학칙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뻔한 사실이 너무 안 알려져 왔습니다.

청소년, 학생도 국민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위헌적인 학칙은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학생’이라는 ‘신분’을 생각해봅시다.

흔히 어른들은 ‘학생이라면...’이런 식의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들끼리도 ‘니가 학생이야?’라는 식의 농담을 자주 합니다. 학생부 선생님들이 자주 하는 말도 ‘학생다운 머리, 학생다운 옷 가짐’입니다. 뭐,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학생다운 머리는 스포츠 형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야 개인의 자유니까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학생들한테 ‘나는 너희들이 스포츠로 꺾었으면 좋겠는데...’하면서 권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학생’이라는 신분을 기준으로 스포츠를 강요하는 것은 분명한 인권 침해이고 헌법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분에 따른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 11 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학생’이라는 신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도구가 되어선 안됩니다. 청소년이라는 신분(?)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좀 요약하자면, 연령이라는 기준과 학생이라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권리 제약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특히 헌법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게 됩니다.

3.경험이 부족하다구? 시행착오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

보수적인 어른들이 또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경험이 별로 없어서 시행착오가 너무 많다’입니다. 그러나, 이 것 처럼 말이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17살이나 19살까지는 경험이 없다가 18살, 20살이 될 때 갑자기 경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경험’은 인간이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지혜의 창고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이나 법률, 사회적 풍토를 보면

‘너희는 경험이 없으니까 아예 경험을 해선 안돼.’

라는 분위기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 ‘처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많이 겪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행착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중요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자유’가 소중한 것은 바로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과연 ‘경험이 없어서’ 권리를 줄 수 없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그 ‘경험’이 생기는 걸까요? 이걸 한마디로 ‘모순’입니다. 마치 ‘너희는 권리가 없어서 권리를 줄 수 없어’라는 말과 같습니다. 보수적인 어른들은 언제라야 이러한 자신들의 말이 모순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까요?

4. 권위적 간섭주의는 정당한가?

앞에서 권위적 간섭주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했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잘 안나시리라 생각하고 다시 설명하죠. 권위적 간섭주의는 ‘권위,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자유를 제한, 침해, 간섭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쉬운 예로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니까 잠자코 내가 하는 시키는 대로만 해!”라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권위적 간섭주의는 사실 모든 종류의 자유권 침해를 일컫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음..살펴보니 그리 좋은 뜻은 아니군요.

그러나 이러한 ‘권위적 간섭주의’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범죄 행위처럼, 누군가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철저히 ‘개인간의 관계’에만 ‘권위적 간섭주의’가 개입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조건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우리의 자유는 제약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에겐 벌을 준다.’

정당합니다. 타인에게 명백한 피해를 주니까요.

그러나,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마라. 학교 분위기 해친다.’

이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무스를 바르는 것은 결코 다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머리에 무스를 바른 것과 학교 분위기가 관계가 있는지조차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지만, **‘학교 분위기’와 같은 ‘집단의 이익’은 결코 권위적 간섭주의가 등장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단’을 형성하는 것은 바로 ‘개인의 자유 등 의 권리’를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인데 ‘집단’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가 제약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것은 우리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지 결코

‘제약을 받으리’ 다니는 게 아닙니다.)

만약 권위적 간섭주의가 ‘개인간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개입하게 되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생깁니다. 가장 쉬운 예가 박정희 독재 시대 때 ‘장발 단속’을 하러 경찰들이 가위를 들고 머리긴 청년들의 뒤를 쫓아다니고,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답시고 자를 들고 아가씨들의 치마길이를 재러 다닌 것이 되겠죠.

청소년이나 아동의 경우에는 ‘권위적 간섭주의’가 더 쉽게 용인되는 데 그건 주로

“너희를 위해서야. 최소한 내가 이 정도 간섭은 해줘야 너희가 행복해”

라는 식의 말과 함께 행해집니다.

말하자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복지’를 위한 간섭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얼핏 보면 정당한 것처럼 보이고, 이 때문에 많은 ‘부당한 간섭’도 이런 ‘복지를 위한 간섭’의 가면을 쓰고 행해졌습니다. 선생님들이 말도 안 되는 걸 시키거나, 잔인하게 때려놓고서 ‘다 너희를 위해서야’라고 말하는 게 그런 대표적인 예이죠. 물론, 우리는 그게 결코 우리의 ‘복지’를 위한 ‘간섭’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당한 간섭일 따름입니다.

복지를 위한 간섭도 정당하지는 못합니다. 왜냐구요?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복지’를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조건’들이라고 정의하고 들어갑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 조건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셨습니까?

인간에게 기본적인 생활조건이 필요한 까닭은 바로 인간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대로 행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복지’는 ‘자유’를 위한 전제조건이지만 ‘자유’를 제약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복지를 위해 자유를 제약한다면 그것은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권위적 간섭주의’는 다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자유를 제약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마치며....

좀 어렵게 느껴졌을 지도 모르겠습니다.(특히 권위적 간섭주의 부분이)

하지만, 이 글을 꼼꼼히 읽고 많이 생각해보시면 우리의 권리가 얼마나 부당하게 제약 당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제약 당해선 안됩니다. **‘학교를 위해서’ 아니면 ‘학칙에 의해서’ 따위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더 이상 속지 맙시다. ‘너희는 어려서’라는 말에도 더 이상 고개를 끄덕이지 맙시다.**

우리는 여태껏 속아왔습니다. 우리는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판단력이 부족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속지 맙시다. 우리도 당당한 권리의 주체입니다. 우리도 판단력이 있습니다. 경험? 그건 점차 쌓아가는 겁니다.

이제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나갑니다.

참고할 만한 인터넷 검색어 : 발달 심리학, 콜버그, 윤리학, 인권, 헌법, 교육학, 간섭주의, 청소년 등등..

이 글을 친구들과 함께 읽고 토론해보세요

토론한 후에 나온 이야기를 정리해서 ‘인권과 교육 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 학생연합’의 홈페이지 중 토론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더욱 좋겠네요..

친구들과 토론을 아직 못했더라도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혹시, 풀리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도 질문해보세요. 같이 풀어나가봅시다.

전국 중고등 학생연합의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students.wo.ro>

<http://www.sure.wo.ro>

<위 글은 중앙대학교 청소년 학과 최윤진 교수님의 “청소년 권리 제한 논리의 부당성에 관한 고찰” 과 한국 교육 개발 연구원 조정래 연구원의 “권위적 간섭주의와 아동의 참여권”이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쉽게 씌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글의 오류나 한계가 두 분의 글에서 기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리재단을 몰아내고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한 상문고 학생들의 투쟁...

우리 학교 인권 점수는?

- 이제 우리가 학교를 평가한다!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그러나 학교는 과연 우리의 인권을 지켜주는 안전한 공간일까요?

되려 우리가 겪는 인권 침해의 대부분이 일어나는 '위험하고 불쾌한 공간'은 아닌가요?

그동안 학교에 의해서 '평가'받기만 했던 우리,

이제 우리가 학교를 평가해봅시다!

바로... **학/교/인/권/지/표/**

각자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지표화 해서 전국적인 기준에서, 국제적인 기준에서 비교해봅시다. 그 동안 입안에서만 맴돌던 학교에 대한 불만을 이제 공식적이고 당당한 태도로 이야기합시다!

올해는 아동 청소년 권리조약에 우리 나라 국회가 비준한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동 청소년 권리조약은 가장 많은 나라가 비준한, 국제 조약입니다.

국회의 비준을 거친 국제 조약은 우리 나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도 아시죠? 예를 들자면, 만약 국제 조약이 '정부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한다고 정해놓았다면' 우리 나라 정부는 마치 우리 나라의 법률을 따르듯이 그 조약에 나와있는 일들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엔에서는 5년마다 각 나라의 정부들이 아동 청소년 권리조약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단체(NGO)에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죠.

올해가 그 두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는 해가 됩니다.

올해 보고서 작성은 존경받는 인권 운동 단체인 '인권 운동 사랑방'의 주도 하에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MIZY 인권 센터와 전국 중고등 학생연합은 인권 운동 사랑방과 함께 보고서의 일부로서 학교 인권 실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학교 인권 실태는 여지껏 체계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기 때문에 먼저, 학교 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개발한 후 전국적인 조사에 나설 생각입니다.

이 글을 읽는 중고등 학생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학교 인권 실태를 조사 할 수 있는 '지표'들을 함께 만들고,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어려워 보인다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의 인권 실태를 평가하는 기준은 청소년 아동 권리 조약에 나와있는 청소년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목록이 학교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가 됩니다.

가령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통신의 자유' 등이 목록에 들어있으면 그것이 실제로 학교에서 강제적인 소지품 검사를 시행하는지, 핸드폰 등의 구입을 규제하는지 등등을 조사 할 수 있을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가를 알아보려면 교지나 학급 신문,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의 글들에 대한 검열이 존재하는지 알아보아도 되겠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지 알아보려면, 동아리를 만드는 과정이 쉬운지 어려운지를 알아봐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목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학교 인권 실태에 대해 섬세하게 포착한 것이 되겠지요.(물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작업들은 결코 장학사나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직접 생활하고 여러 일들과 부딪히는 학생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아니면 중고등 학교의 인권 실태를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재정 후원한 MIZY 인권 센터와 인권 운동 사랑방과 같은 존경받는 단체와 함께 한다면, 게다가 유엔에 제출할 보고서라면 학교나 선생님들도 감히 어찌지 못할 것입니다.

학교 인권 실태를 바꾸는 첫걸음. 학교 인권 지표 조사를 함께 해요~

함께 하시려면 중고등 학생연합 홈페이지(<http://www.students.wo.ro>)로~!

쉬운 말로 고쳐쓴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조약

다음은 인권 운동 사랑방에서 펴낸 ‘인권 교육 길잡이’에 나와있는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 조약중 우리가 시행할 ‘학교 인권 지표’와 관련 있는 즉, ‘학교’라는 공간과 관련 있을 법한 조약을 발췌해서 실었습니다. 전부를 실고 싶지만 발췌하게 된 것은 지면상의 제약 때문입니다.

제1조.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아이와 청소년은 이 조약에 적혀있는 모든 권리의 주인이다

제2조.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백인이건 흑인이건 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조약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3조

어른이 우리에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어른은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우리들 청소년 모두가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9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부모님과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경우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를 해치거나 보살펴 주지 않을 때이다 또한 부모님이 서로 따로 살기로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 분과 함께 살아야하지만 두분 모두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2조

어른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위에겐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13조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지치는 않는지 잘 생각해서 해야만 한다.

제14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제15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모임은 안 된다.

제16조

우리는 사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17조

우리는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책 등을 통해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다 어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제23조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인인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7조

우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등을 주어야 하고, 만일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 경우에는 정부에서 부모님을 도와주어야 한다.

제28조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제29조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람됨,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맘껏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30조

소수집단의 청소년에게도 자신만의 문화를 즐기고 자신들의 종교를 믿으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31조

우리에게 쉼과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2조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 때는 건강에 안 좋거나 학교에 가지 못할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번다면 우리는 우리가 일한 대가를 충분히 받아야 한다.

제33조

우리는 법을 어기면서 마약을 만들고 파는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제34조

우리는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도 우리 몸에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다 곧 누군가가 함부로 우리 몸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게 할 수는 없다.

제37조

우리도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심한 창피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벌을 내릴 수는 없다 최후의 방법인 경우를 빼고는 우리를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감옥에 들어갔을 경우 우리는 감옥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와 정기적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40조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경우, 우리는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경찰과 변호사와 법관은 우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제42조

모든 어른과 청소년은 이 조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역시 이 권리들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끝>

아동-청소년 권리 조약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전국 중고등 학생연합의 홈페이지(<http://www.students.wo.ro>)에 오시던지 아니면 인권 운동 사랑방에서 펴낸 '인권 교육 길잡이'라는 책을 직접 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 학생연합

- '학생연합'은 학력/학벌 차별의 풍토 속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에 의해, 청소년은 인간 취급을 당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에 의해 무제한적인 인권 침해를 받은 학생들의 인권과 왜곡된 교육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전국 중고등 학생들의 연합 조직입니다

입시 홈페이지: <http://union10.org>

대표자 연락처: (육이은)

e-mail : union10@mizy.net

- 현재 함께 조직에서 활동할 의욕있는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저희는 각 학교의 학생인권의 피해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교칙 모으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은 교칙들은 인권운동 사랑방과 함께 분석하여 인권 침해 내용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각 학교의 문서로된 교칙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생활국에서는 각 학교의 학생회 운영기획안을 모으고 있습니다. 각 학교의 학생회 운영사항들을 조사하여 학생회 활동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모범 운영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각 학교의 학생회 운영사항들을 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